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SCHWESTERN IM PARK © Helena Parada-Kim, 2006

“실제 우리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너무나 사실 그대로 잘 표현된 극.”

실제 재독간호사 '김순임' 선생님

“파독간호사의 고달픈 생활과 외로움을 조명하던 연극은
후반부에서 굴곡진 현대사의 장면들을
진지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건드린다.”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단순히 ‘재독간호사의 삶을 재연한 작품’
혹은 ‘중년 여성이 주연인 페미니즘적 가치를 담은 작품’
등으로만 보기에는 풍성한 텍스트가 담겼다.”

문화뉴스 서정준 기자

Q. 왜 독일로 떠나게 되신 건가요?



병동소녀 **순옥**

중매가 너무 싫었어. 남자들만 자유롭게 연애하라는 법 있니?(웃음)



병동소녀 **명자**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안사정 때문에 남동생들에게 양보했거든.
독일 가면 공부할 수 있게 될까 싶어서.



병동소녀 **국희**

단순하게 외화에 나오는 미니스커트 입고 고고춤 추는, 그런 거.
그 나이 또래 여자아이라면 한번쯤 동경했을거야.

Q.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네요.



병동소녀 **국희**

알고 보면 다른 거 꽤 많을 걸.(웃음)



병동소녀 **명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된 것들이 많으니까.



병동소녀 **순옥**

우리 이름은 없어지고 ‘파독간호사’로 남았지.

Q.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동소녀 **순옥**

독일 간호사랑 똑같은 일 했지. 근데 독일은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같이해서 처음에는 우리만 간병시키는 줄 알고 발근했지.



병동소녀 **명자**

그래서 순옥이가 열받아서 병원 접시 다 깨버렸잖아.(웃음)

Q. 왜, 돌아오지 않으셨죠?



병동소녀 **국희**

집이 뭐 별거인가? 지금 사는 곳이 바로 집이지 뭐.



병동소녀 **순옥**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날거야.

Q.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병동소녀 **명자**

국적, 인종, 나이 상관없이 여성이 함께 연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함께 목소리도 내고.



병동소녀 **국희**

아 맞다. 재엽이가 우리 이야기 연극으로 해서 11월에 한국에서 올린다고 했는데.



병동소녀 **순옥**

애. 벌써 비행기표 끊었어. 얼른 짐 싸.



〈알리바이 연대기〉〈배수의 고도〉〈생각은 자유〉
 김재엽 연출의 세계시민, 난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그래서 더 정치적인’ 탐구!

“이주민, 여성, 노동자는 원래 집이 없어.
 집 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뭔지 알아? 거리로 나서는 거지.”

베를린에서 지내며 수많은 재독간호여성을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기록해 온 연출가 김재엽. 그는 거대 담론에 의해 소외되었던 간호여성들의 ‘절반의 역사’ 속
 그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남동생과 오빠를 가진 한 딸로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사랑하고 싶은
 여성으로서 독일행을 선택한 개개인의 동기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정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혹은 미디어에서 늘 보아왔던 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40년 전 독일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라보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2017년 급변하는 세계사회 속 우리가 고민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근대 경제 발전의 상징?
NO! 40년 전부터 시작된 그들의 걸크러쉬적 행보!
그들의 목소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의 인습과
문화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전인간의 의식화를 주장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라고 쓰고 ‘해외취업 1세대’라고 읽는다! 커리어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차별과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넘치는 카리스마로 맞서 싸운 ‘멋짐 가득한’ 그녀들!
1973년 국제 기름파동으로 독일에서 이주여성의 체류허가를 중단하자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Wir sind keine Waren! Wir sind Menschen!)”라는 구호를 외치며
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얻는 그녀들의 관심은 2017년 현재 여성난민문제,
아시아 위안부여성 문제로 확대되며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걸크러쉬적 행보를 담은 이번 연극은 우리들과 똑같은 고민을 한 ‘언니’들의 삶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커리어, 연애, 결혼과 같은 수많은 선택에 대한 신선한 해답을 줄 지도 모른다.

시놉시스

40년 전 서로 다른 이유로 독일행을 선택하게 된 명자, 순옥, 국회. 한국이라면 한 번도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이 세 여성은 낯선 땅에서 간호여성으로 만나 서로 의지하며
독일사회에 적응해간다. 그 무렵, 부르주아 유학생 정민은 독일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며
이주민 개인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결정한다.
정민의 논문을 계기로 친분을 쌓게 된 네 여성은 독일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중단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맞서 체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이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재독한국여성모임’은 그들 앞의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통로로서, 개인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길을 택하는 데에 힘이 되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들 모두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간다.

극작연출 소개 극작가/연출가 **김재엽**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배수의 고도〉,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생각은 자유〉 등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도 그만이 가진 재치와 유머를 잃지 않으며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 젊은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 김재엽. 그는 극작가로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연극화하는 그만의 다큐멘터리적 연극 화법으로 연극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창적인 그의 작품에서 관객들은 김재엽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다.